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예배 후 1월 정기 임원회로 모입니다. 새로 되신 임원들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집회 후 세미나실에서 선교회장과 인도자들의 간담회가 열립니다. 새해의 중점사업을 정리해오십시오.

다음 주일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배움과 교제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 헌금함에 넣으십시오.

2월 1일(금)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설 연휴에 속한 8일은 쉬고 15일부터 가정에서 모이면 됩니다.

예배인도 - 엠마오 속 식사준비 - 베다니 속

다음 주일 11시에 교육관에서 2007학년도 청파교회학교 졸업예배를 드립니다. 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전 교회학교가 연합으로 드립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수주교회의 부흥사경회를 인도합니다.

집회 참석을 거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결길로 달려가기 일쑤인 우리들을 어찌 이리도 사랑하시는지요? 주님의 맑고 깊은 눈길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가짜 욕망에 길들여졌고, 세속의 지혜를 믿어 의지하였고, 천박한 쾌감에 도취되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차가운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할 수 있게 하는 희망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직 당신 안에서만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거미줄처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허위의식으로 부터 해방시켜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빛 안에서 걷고, 주님의 양식으로 자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한선희 김훈동 임승동 백혜숙 오미래 권미숙 장민숙 박시내

월정헌금:

김수진 김승현 김순자 류건형 이지은 권 순 윤정화

감사헌금:

송임희 오정숙 정현창 고재중 홍순구 안홍숙 홍지희 이증자
나오미 선교회 무명8

생일감사헌금: 박시내 이성의 허호범 이은자

100주년 기념헌금 :

김기석 김희우 송임희 하정석 이명희 배근수 김금순 정완수 김재광
(100주년 헌금 누계: 160,940,000원)

	장혜숙 노순옥 임정자 문영혜 안정숙 박홍재 박효선 최숙화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백혜숙 송양진 이영란 박혜경	장혜숙 정경례 임정자 박경선 박애순 곽권희 허정윤 권미정 김금순 권미숙 오현정 정옥영 유경순 박미영 최영혜	심	연합회
--	---	---	---	-----

제 생각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생각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것들이 저를 떠나서 마구 돌아다니는데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당에 있을 때에는
 장난꾸러기 아이들처럼 떠들며 소란을 피우고,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디 먼 도시로 날아가서
 예쁜 여자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단숨에 큰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땅에서 하늘로 날아올랐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돌아오기도 하지요.
 잠깐 동안 저에게 머물렀다가는 어느새 달아나는데,
 어떤 사슬, 어떤 자물통으로도 그것들을 잡아둘 수 없고,
 어떤 위협으로도 겁줄 수 없으며,
 어떤 채찍질로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뱀장어 꼬리처럼 제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고,
 제비처럼 솟구쳤다가 곧두박질합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읽으시는 그리스도님,
 제 생각을 붙잡아주십시오.
 제 생각을 저에게로 데려다주시고,
 저를 당신께 비끄러매주십시오.
 (켈트 기도문, 450-700)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를 가두던 무덤의 돌문은 이미 굴러졌습니다. 절망과 한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오.

아멘. 이제는 한숨을 거두겠습니다. 낮빛을 바로 하고 주님을 모신 자의 기쁨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일상을 생명의 축제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환한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 맥잡기/김기석 목사	김재흥 목사
기도/정미경 집사	기도 : 안길상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윤윤 선생 한완식 장로	인도자 박홍재 권사

1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정길 고광송 강순배 최숙화 서정순
	헌금위원	김철수 강순배(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도암의 성자’ 고 이세종 선생

전남 화순군 도암면. 천불 천탑 이야기가 전해오는 운주사가 가까워오자 왼쪽에 올림픽 성화같은 모습의 개천산이 우뚝 솟아 하늘을 향하고 있다. 개천산. ‘하늘 문이 열렸다’는 산이다.

그 산만을 바라보고 가니 맑은 물이 고요한 동광저수지가 거울처럼 개천산을 비춰주고 있다. 호수 옆 마을 사람들은 용기종기 모여 음식을 나눠 먹다가 처음 본 나그네조차 손짓으로 불러 한입을 권한다. 바로 이세종(1880-1942)의 마을 사람들이다.

동광리 산길을 따라 개천산으로 한참을 오르니 외딴 산기슭에 조그만 집 한 채가 서 있다. ‘이세종수양관’이다. 수양관을 홀로 지키는 심상봉(71) 목사와 어린 시절 이세종을 보았던 이원희(75) 장로, 이세종의 삶을 좇아 독신 수도자로 살아온 한영우(78) 장로가 그의 삶을 전해준다.

삼 형제의 막내로 태어나 일찍 부모를 잃은 이세종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다. 가난에 한이 맺힌 그는 전답과 집을 마련해 남보란 듯이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래서 주위에 인정을 두지 않고, 자린고비로 살며 악착같이 재산만 그러모았다. 마흔 살이 되자 그는 어느새 100마지기 에 이르는 전답을 지녀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열 여섯 살이나 어린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 자식을 얻기 위해 무당이 잡아준 터에 산당을 지었다. 산당을 짓는 목수는 기독교 신자였다. 목수는 일하면서 찬송가를 불렀고, 쉬는 시간엔 성경을 보았다. 이를 지켜보던 이세종은 어느 날 그에게 성경을 빌렸다. 그러나 까막눈이었다. 마을 사랑방에 가 글자를 아는 사람에게 성경 첫줄을 읽어달라고 했다. 창세기 1장 1절이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였다. 그 한 구절을 새기며 개천산을 오르던 이세종의 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펼쳐졌다. 호수와 산과 나무와 풀...그 모든 것이 나와 다름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형제요, 천지가 바로 우리의 집이었던 것이다. 그는 갑자기 춤을 추었다. 필쩍필쩍 뛰는 품이 영락없이 미친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것’에만 집착해 눈동자를 뒀던 안개가 걷혀 눈이 환해진 개인과 개천의 기쁨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그 기쁨으로 밤을 밝혀 글을 깨친 그는 성경의 정신을 꿰뚫었다. 고리

대금업자처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겨온 그는 그 자리에서 모든 빚 문서를 태워버렸고, 재산을 팔아 걸인과 빈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알게 된 그에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식에 대한 미련도 없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운 이세종은 그 뒤 빌 공(空) 자를 써서 스스로를 이공이라고 했다. 그가 철저히 부인한 것은 이름만이 아니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탐할 수 있는 재산욕, 명예욕은 물론 식욕, 색욕, 수면욕도 철저히 극복해 초월했다. 그때부터 아내를 누이로 대했고, 죽는 순간까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 결혼한 몸으로서 인도의 간디보다 앞선 금욕의 선언이었고, 그보다 더 철저히 이를 지켰다.

하루아침에 탈속해버린 이공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아내였다. 여전히 짧은 욕정을 잠재울 길이 없던 아내는 참다못해 새서방을 얻어 집을 나가버렸다. 그러자 이공은 아내의 짐을 지게에 저 날라다주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찾아가 “살다 살다 못 살면 언제든 다시 오라”고 말했다. 얼마 뒤 아내는 돌아왔으나 다시 다른 서방을 얻어 떠나갔다. 수년 뒤 다시 돌아온 그의 아내는 이곳보다 더 깊은 화학산 외진 산골에서 걸인처럼 살던 이공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이공이 죽자 산나물을 뜯어먹으며 3년간 시묘살이까지 했다.

이공이 개안 후 가장 변한 것은 자연에 대한 태도였다. 그는 “피는 생명”이라며 일체의 육식을 하지 않았다. 독에 빠진 쥐를 건져주고, 자기를 문 지네를 풀숲에 놓아주었다. 그는 혹여 개미를 밟을까봐 길을 걸을 때도 조심스러워 했고, 나무와 풀이 꺾인 것을 보고도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런 모습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공은 말했다. “세상엔 버릴 것이 없지라. 잡초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지라우. 버린 돌이 집 초석이 되곤 한당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째서 그것을 모른대요.”

이공은 죽음이 가까워오자 석 달 동안 곡기를 끊었다. 화학산 골짜기에 찾아온 다섯 명의 제자들이 마른 장작처럼 말라 거지 옷을 입고 있는 그를 둘러메자 그는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고 춤을 추듯 노래하며 눈을 감았다. 큰 재산가였던 그가 죽을 때 남긴 것은 땅 한 평은커녕 옷 한 벌도 없었다. 그의 유산은 말이 아니라 오직 행동으로만 전도하러 했던 그를 따랐던 ‘맨발의 성자’ 이현필, 성녀 수락기택, 소록도를 세운 나환자들의 아버지 최홍종 목사, 걸인들의 아버지 강순명 목사 등 수많은 제자들의 ‘삶’ 속에서만 살아 숨쉬고 있다.